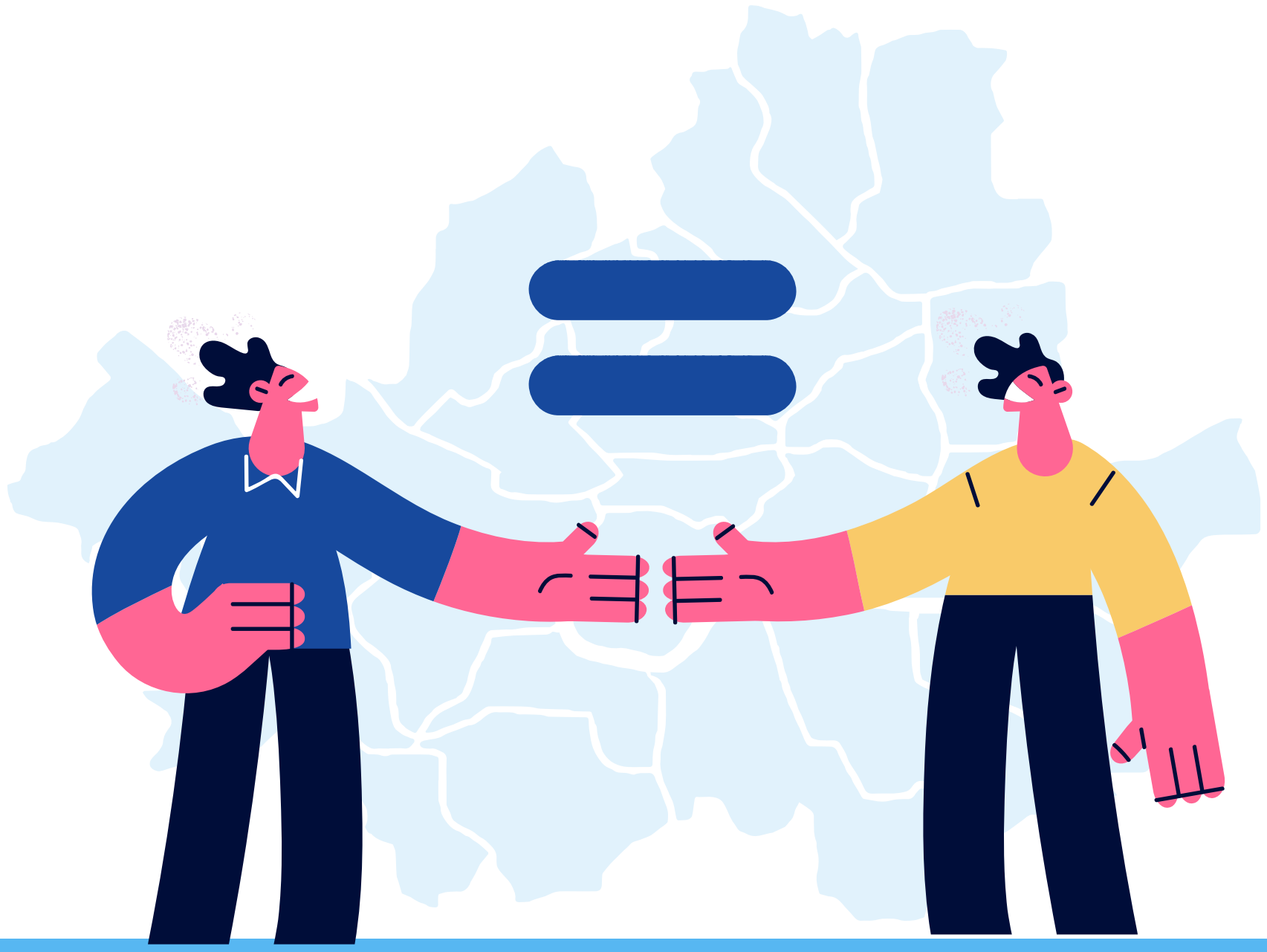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지역성평등지수*로 살펴보는

서울의 성평등 수준 분석



※ **지역성평등지수란?** 지역성평등지수는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11년 개발된지수로, 국가성평등 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 된 값(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 이 콘텐츠는 2023년 지역성평등보고서(여성가족부, 2023)의 서울시 내용을 카드뉴스로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

서울의 성평등 수준 종합순위는, 2018년 상위권으로 진입하였다가 2019년 다시 중상위권으로 하락하였으나,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상위권을 차지함

<서울시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연도	종합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7	중상위권	70.5	2	83.1	16	73.5	7
2018	상위권	71.9	1	84.3	14	75.0	4
2019	중상위권	72.3	3	84.6	17	75.4	8
2020	상위권	73.4	3	85.9	15	76.3	5
2021	상위권	74.4	1	87.1	9	76.9	4
2022	상위권	74.6	4	86.7	10	79.0	4
2021년 대비 증감	동일	0.2	-3	-0.4	-1	2.1	0
2017년 대비 증감	1단계 상승	4.1	-2	3.6	6	5.5	3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출처: 여성가족부(2023) 2023년 지역성평등보고서, p. 75

해석: 모든 지표는 완전 불평등을 의미하는 '0.0점'부터 완전 평등을 의미하는 '100.0점'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다는 것은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경제활동 분야

경제활동 참여 수준, 근로조건, 고용안정성에 대한 성별 격차를 측정한 경제활동 분야의 점수는 **79.6점**으로 전국 평균 76.7점보다 2.9점 높음

76.7점

전국

79.6점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의사결정 분야

정치, 행정, 민간의 대표성에 대한 성별 격차를 측정한 의사결정 분야의
점수는 **46.6점**으로 전국 평균 40.6점보다 6.0점 높음

40.6점
전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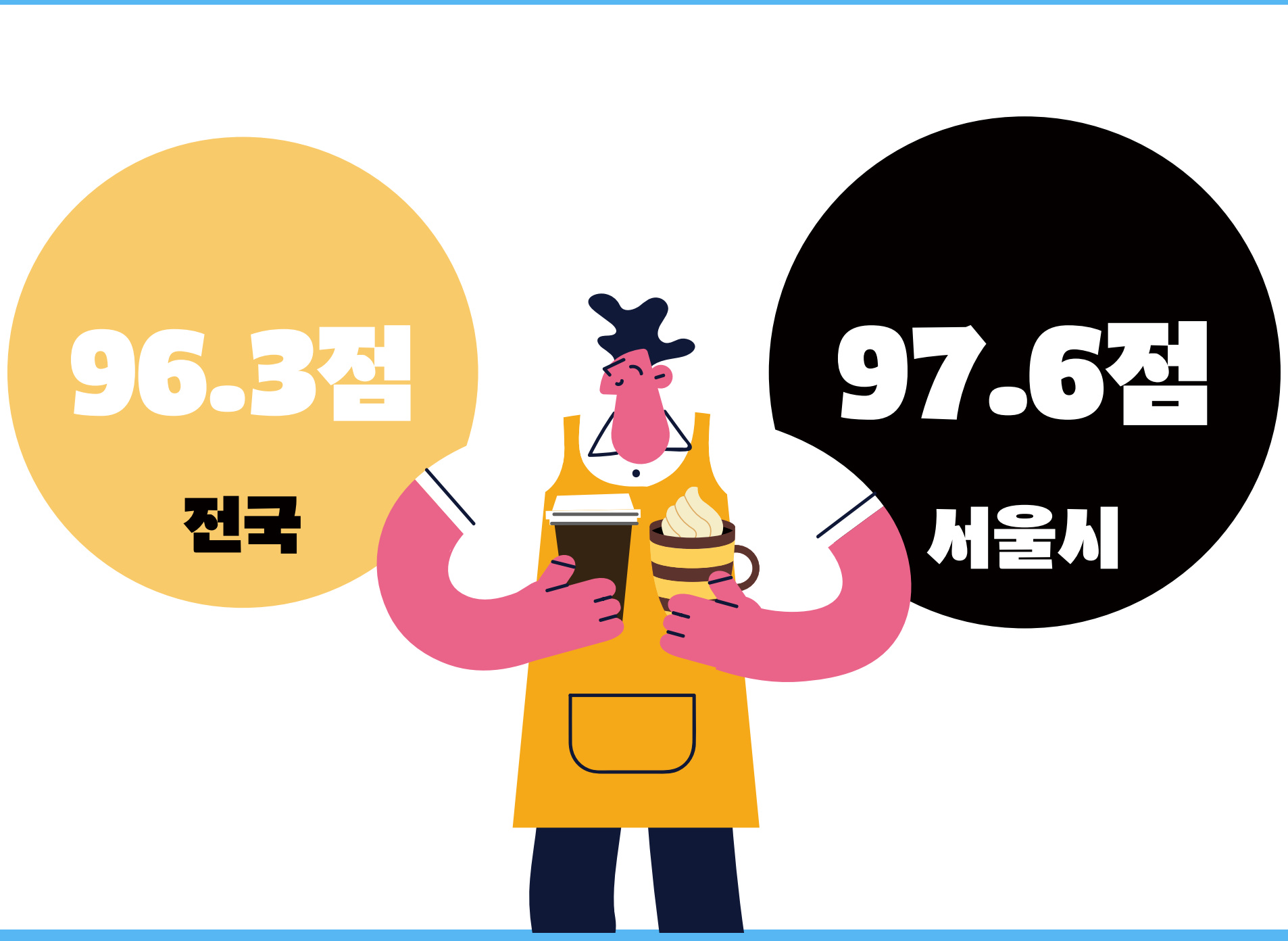
46.6점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교육·직업훈련 분야

교육에서의 기회 평등을 측정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점수는
97.6점으로 전국 평균 96.3점보다 2.9점 높음



복지 분야

빈곤과 미래 소득 보장에 대한 성별 격차를 측정한 복지 분야의 점수는 **46.6**점으로 전국 평균 40.6점보다 6.0점 높음

40.6점
전국

46.6점
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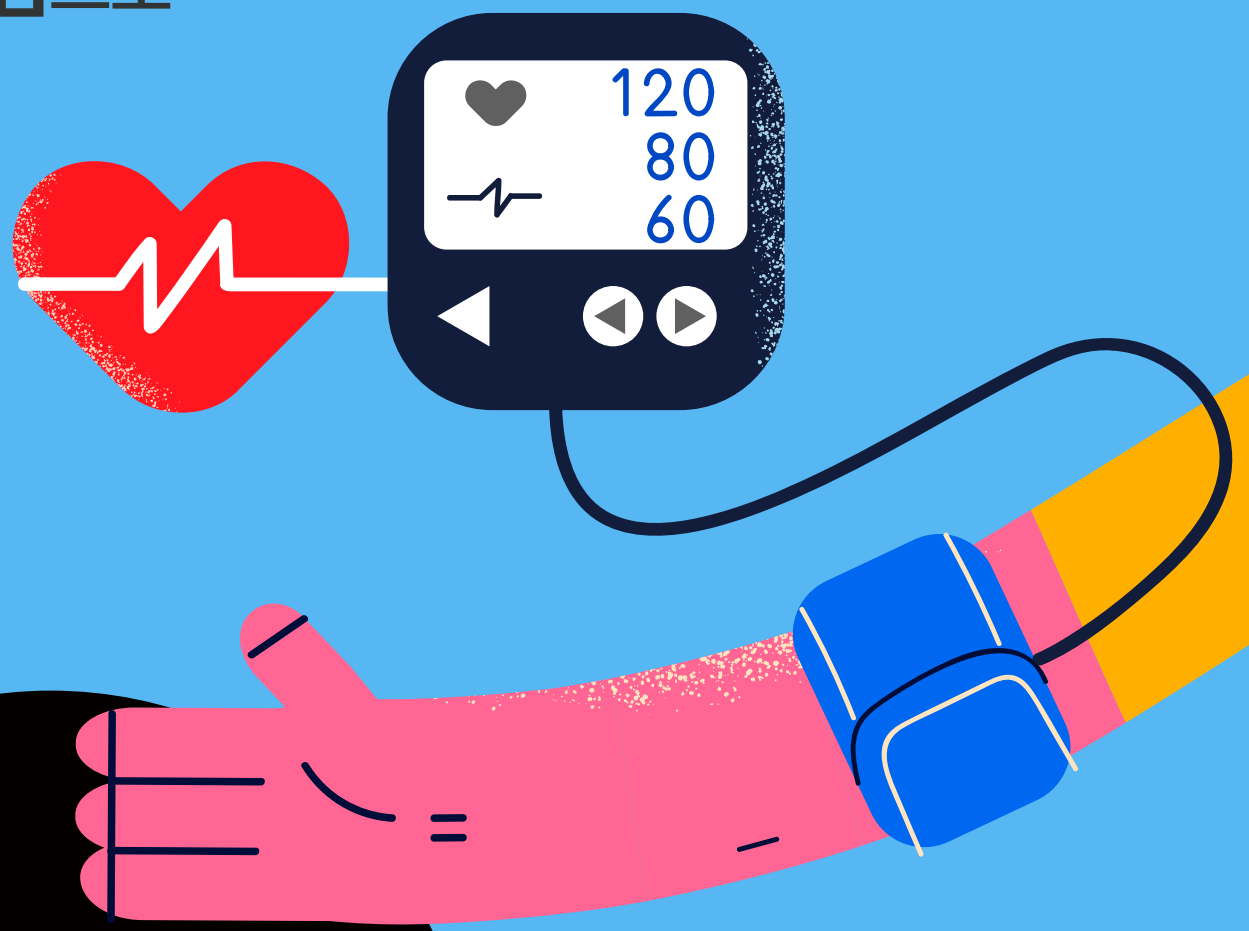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건 분야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수준과 관리, 정신 건강에 대한 성별 격차를
측정한 보건 분야의 점수는 **98.3점**으로
전국 평균 97.2점보다 1.1점 높음



97.2점

전국

98.3점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안전 분야

범죄피해자와 안전인식에 대한 성별 격차를 측정한 안전 분야의 점수는
71.3점으로 전국 평균 77.6점보다 6.3점 낮음



77.6점
전국

71.3점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 분야

가족 내 성평등한 관계와 의식에 대한 성별 격차를 측정한 가족 분야의
점수는 **68.8점**으로 전국 평균 68.6점보다 0.2점 높음

68.6점
전국

<

68.8점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문화·정보 분야

여가와 정보에서의 성별 격차를 측정한 문화·정보 분야의 점수는
89.1점으로 전국 평균 87.6점보다 1.5점 높음

87.6점
전국

<

89.1점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의 성평등 개선 분야 및 지표

서울시의 성평등 개선은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023년은 특히 전년 대비 강력범죄(흉악범-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를 포함) 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하위권에 위치

성평등 순위	분야
상위권(1~5위)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문화·정보
중위권(6~13위)	보건, 가족
하위권(14~17위)	**안전**